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예타 통과

전남도, 사업비 6915억 확보 여수광양항 발전 전환점 기대

광양항 3-2 부두에 국내 최초로 전 영역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을 위해 추진하는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최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기재부의 재정사업평가위에서 경제성분석(비용대비 편익분석)은 0.97, 종합평가(AHP)는 0.594점을 받았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을 위한 사업비 6915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광양항은 현재 컨테이너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자동화 컨테이너 터미널이 구축되면 항만 활성화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전남도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해양수산부-광양시-여수광양항만공사-KMI 등과 공동 TF를 구성해 11차례 회의를 하는 등 적극 대응했다. 특히 전남도는 정무부지사가 7월 기재부와 KDI를, 8월 해양수산국장이 기재부와 KDI를 방문한데 이어 지난 24일 문금주 행정부지사가 KDI의 AHP 평가회의에 참석해 지역주민의 사업 추진에 대한 열망을 전달하고 전남도 미래 성장의 중요한 동력임을 강조하며 심사위원들에게 예타 통과를 간곡하게 건넸다.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10위권 항만이 자동화를 도입해 하역작업의 생산성·안전성 향상 등 무한 경쟁 시대를 열어가게 기대한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컨테이너 터미널 자동화 구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정부가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을 한국판 뉴딜에 반영, 예타 대상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선정, 올해 2월 조사에 착수했다.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은 2022년

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6915억원을 들여 5만급 3선석, 2만급 1선석의 자동화부두 4선석을 갖추는 사업이다. 현재 8선석 272만TEU의 하역능력이 12선석 408만TEU로 늘고 등 항만 하역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돼 광양항 활성화의 전기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광양항 자동화부두 구축을 선두로 부산항 진해신항, 인천 신항에 자동화부두를 연속적으로 도입해 세계 컨테이너 부두와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지역 주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앞으로 광양항을 '아시아 최고의 스마트 복합항만'으로 육성하는데 도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하는 등 자동화 부두 조기 개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신성장 동력 '해상풍력 생태계' 밑그림 완성

전남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국가 산업생태계 허브 조성

세계적인 해상풍력산업 중심지로 도약을 꿈꾸는 전남도가 종합적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구축 방안이 담긴 밑그림을 완성했다. 오는 2030년까지 민간자금 등 총 48조5000억원을 들여 신안 해상에 세계 최대 8.2GW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단지 배치 계획, 관련 기업 유치 방안, 관련 기자재 연구개발 방향 등을 담았다. 전남도는 지난 26일 에너지산업국장 주재로 전남도의회, 시·군 공무원, 해상풍력 관련 전문가들과 '해상풍력 산업생태계 조성'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목포대 산학협력단과 전남테크노파크, 녹색에너지연구원,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지난 3월 착수했다. 불모지나 다

름없는 국내 해상풍력 분야를 개척하기 위해 선진 해외 개발사례 분석, 수차례의 전문가 인터뷰, 기업 면담,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일궈낸 성과물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해상풍력 부품 제조·조립 단지 현황조사 및 배치계획 ▲국내 해상풍력 연구개발·육성계획 및 국내외 기업 유치 방안 ▲해상풍력 국산 기자재 연구개발(R&D) 과제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남도는 참석자의 발전적 의견을 반영해 이달 말까지 연구용역을 최종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신남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8.2GW 해상풍력사업을 토대로 전남 서남권에 글로벌 해상풍력 산업생태계를 구축,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 진출 교두보로 육성할 것"이라며 "이번 용역 결과물을 신규시책, 국고 건의 등의 자료로 적극 활용해, 전남을 넘어 국가 차원의 산업생태계 허브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영섭 광주시장이 26일 오후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연차별실시계획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구청장, 관련 전문가 등과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라키비움·빛 공원·웹툰 지구 조성

2023년 20중심도시 76건 심의

광주시가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활성화를 위해 라키비움, 빛 공원, 웹툰 지구 조성에 나선다. 광주시는 2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2023 연차별 실시계획안을 의결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법정 계획으로 신규·계속 사업 76건을 담았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K-문화디자인 라키비움, 아시아 빛 스토리 파크, 웹툰 지구, 문화 테마공원

조성 등이 제시됐다. 라키비움은 도서관(Library)·기록관(Archives)·박물관(Museum)의 기능을 가진 복합 문화공간을 말한다. 계속 사업은 아시아 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추진, 사적 국제문화 교류타운 야외음악당 조성,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벨트 조성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심의 결과를 토대로 중앙 부처들과 협의해 대통령 소속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조성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년 3월까지 계획을 승인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더 크고 강한 광주 만들겠다" 이용섭 시장 시의회 시정연설

이용섭 광주시장은 "그동안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실현 노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2022년을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위해 도약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지난 26일 광주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광주시는 시대의 화두인 인공지능, 기후위기 대응, 노사상생, 출산율 제고 등을 발 빠르게 선점해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내년은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한 미래산업 육성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더 나은 광주를 위한 투자에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시, 행정수요 변화 대응 조직개편

녹지공간 확충 녹지정책과 신설 지방분권 강화 시의회 조직 확대

광주시가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원활한 대응과 현안·역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직개편에 나선다. 26일 광주시에서 따르면 최근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자치법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편안은 도심생태환경 조성 기능 강화와 생태·예술 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조직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노동·건축분야 안전 기능과 소방 현장 부족인력 보강,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의회 인사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시는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방안으로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녹지·산림정책을 총괄하는 녹지정책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개정을 앞

둔 광주 최초 시립수목원의 관리·운영을 위해 푸른 도시사업소에 소목원 정원과도 새롭게 설치한다. 또한, 연말 준공 예정인 광주미디어 아트센터를 운영할 전담기구를 시립미술관 분관으로 신설하고, 예술·기술 산업의 융복합과 선순환을 통한 미디어아트 허브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3일부터 시의회 인사권이 분리됨에 따라 인사혁신팀을 신설하고, 재단·재해 예방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노동협력관에 '노사상생안전팀', 도시경관과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둔다. 광주시 조직개편안에 따라 시 기구는 분청 2과가 증설된 4실 8과 2본부 73과로 조정되며, 총 정원은 4108명에서 소방인력 50명을 포함해 82명이 늘어난다. 이번 입법예고된 조직개편안은 다음달 14일까지 열리는 시의회 303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며,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자로 공포·시행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국산김치 사용표시제' 목표 초과 달성

추진 7개월만에 5000개소 돌파

전남도가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민관협업형 '국산김치 사용인증업체 표시제'에 도내 음식점, 학교, 공공기관 등이 적극 동참해 목표 5000개소를 넘어섰다. 11월 중순 현재 도내 총 5021개소가 '국산김치 사용 인증업체 표시제' 인증을 마쳤다. 지난 4월 전남도와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대한민국김치협회)가 협약하고 표시제를 본격 추진한 지 7개월 만이다. 인증업체 유행별로는 음식점이 전체의 65%인 3250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교급식 1597개소, 공공기관 등 단체급식 167개소, 휴게소 7개소다.

전남지역 대표 관광지 주변 음식점거리의 식당도 인증에 적극 참여했다. 거리별로 영광 굴비거리 30개소, 장흥 토요시장 25개소, 함평을 장터(생고기비빔밥)와 무안 빨간지 거리가 각각 19개소, 여수 낭만포차 18개소, 순천 웃장 국밥거리 17개소, 신안 삼백낙지거리 9개소, 완도 전복명가거리 8개소 등 150여 음식점이 인증을 마쳤다. 기업체의 경우 1일 1만3000여명이 이용하는 영암 삼호조선소의 구내식당 10개소를 비롯해 3350여명이 이용하는 포스코광양제철소의 구내식당 5개소, 1000여명이 이용하는 곡성 금호타이어 구내식당 등도 인증을 획득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카드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삼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점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